

# 〈謝氏南征記〉의 表現樣式 考察

— 劇的 狀況을 中心으로 —

金 鎮 榮\*

## 차 례

1. 緒 論	1) 心理·狀況의 背景의 造成
2. 表現樣式으로서의 劇的 狀況의 實際	2) 登場人物의 性格 形象
1) 結緣과 劇的 狀況	3) 事件進行의 複線·立體化
2) 謀陷·陰害와 劇的 狀況	4) 惡의 表出과 懲罰
3) 治罪와 劇的 狀況	4. 小說의 受容과 劇的 狀況의 意味
3. 劇的 狀況의 機能	5. 結 論

## 1. 緒 論

고전소설은 대체적으로 영웅적인 주인공의 일대기를 계기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소 물개성적인 등장 인물에, 무대 배경도 허탄한 세계가<sup>1)</sup>

\*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1) 고전소설의 배경상의 특징은 비현실적인 무대가 주종을 이룬다는 점이다. 특히 초기 소설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더하여 대부분의 사건이 이곳에서 진행되거나 이곳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신성성이 중시되던 서사체에서는 그 허탄한 배경으로 극락·지옥·용궁·지하 등이 활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점

많이 제시된다. 또한 사건 진행도 주인공의 행위와 성공에 주안점을 두고 대립 인물을 징벌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말하자면 주인공의 神異한 출생·역경의 극복·회운·행복한 결말이 고전소설의 사건 진행에서 공식처럼 활용되고 있다.<sup>2)</sup> 그래서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우연히 도움을 받아 해결되고 악인은 반드시 처벌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제 사상도 선한 주인공이 소원 성취하고 악한 대립 인물이 처벌되는 이른바 권선징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3)</sup> 많은 고전소설에서 이러한 양상을 찾아 볼 수 있기에, 이는 고전소설의 구조적 특성으로 보아도 무난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이러한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양한 소설이 창작·전승될 수 있었던 동인은 무엇이고, 고전소설의 문예미나 읽는 재미는 어디에 있었는지 따져 봐야 할 일이다. 소설의 교시적 기능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읽는 즐거움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문예미는 다양한 서사 장치를 동원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고, 이 주제에서 오는 정서의 환기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sup>4)</sup> 하지만 소설을 읽을 때 그 주제에서 오는 쾌감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읽는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소설을 읽는 또다른 동인이기 때문이다.<sup>5)</sup> 교시적 기능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이미 소설의 범주와는 거리가 있는 教化書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sup>6)</sup>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여러모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

에 대해서는 김진영, 佛敎小說의 構成 原理와 他界의 相關性 研究, 백련논집 5·6합집, 백련불교문화재단, 1996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84. 139~169.

3) 차용주, 주제론, 한국고소설론, 아세아문화사, 1991, p. 167.

4) 소설은 특정한 배경에서 특정인물이 등장하여 다양한 사건을 벌인다. 이 사건의 전개로 작자나 전승자가 주장하고픈 생각을 전하는데, 이것을 주제사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주제사상만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설을 읽는 것은 아니다. 읽는 과정에서 느끼는 독특한 재미가 소설을 읽는 또다른 요인이기 때문이다.

5) 이 재미는 읽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을 깨닫는 기쁨이나, 묘사에서 떠오르는 심상에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재미를 유발하는 것은 장면 단위의 극적 상황이라 하겠다. 이 극적 상황은 연극과 같이 등장인물이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6) 소설이 교훈적 기능만 중시한다면 그 문예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훈성을 중시했던 《內訓》·《三綱行實圖》·《五倫行實圖》·《二倫行實圖》 등의 찬저에 이입되어 있는 작품들이 문예성보다는 교시성을 중시하여 문학성

있는 장치를 요소 요소에 배치해야 전승과 수용에 용이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하여 고전소설은 것처럼 다채롭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동일한 구성·주제·인물·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소설만이 갖는 독특한 정취 때문에 다양한 작품으로 전승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설은 동일한 구조라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중요하다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의 하나로, 서술·서사·묘사·대화와 이들을 토대로 하여 벌이는 극적 상황<sup>7)</sup>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8)</sup> 이 극적 상황은 독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유발하고, 현장감·사실감을 확보케 함은 물론 소설을 읽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미를 촉발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 장면을 확대하여 흥미와 재미를 제공하는 표현 양식상의 특징이라 하겠는데, 판소리에서 장면의 극대화와 같은 효과를 보여 주는 일면도 있다. <춘향전>에서 변사또를 징벌하기 위하여 이도령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마침내 어사출두로 변사또를 통쾌하게 治罪하는 상황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이를테면 극적 상황이 독자들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카타르시스의 작용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고전소설에서 두루 찾아지는 특성 중의 하나로 선인형 인물이 악인형 인물을 징벌하거나 악인형 인물이 선인형 인물을 모함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악인형 인물이 선인형 인물을 모함하거나 저주·배척할 때 이 극적 상황이 종종 활용되는 면모를 볼 수 있다. 그래

---

이 덜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들은 교화서로서의 기능에는 충실했지만, 고전소설처럼 대중들의 문예욕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7) 극적 상황이란 용어는 서사내용을 전개하되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여 연극처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극적 상황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특정 인물을 속이기 위해서 다수의 등장인물이 배역을 맡아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독자는 모두 알고 있지만, 속임 당하는 인물은 알지 못하기에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보면 서사적 역량이 배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극적 상황으로 설정했음을 밝힌다.
- 8) 실제로 고전소설 중 풍자류에 해당하는 작품들에서는 이 극적 상황이 표현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假儒나 僞善者를 응징하는 수단으로 이 극적 상황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男性毀節談類에서도 이 방법이 종종 활용되어 소설을 읽는 재미를 더한다.

서 서사적 긴장과 흥미는 배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독자들이 소설에 매료될 수 있었던 동인 중의 하나를 살피는 것으로, 결국 소설의 문예미가 어디에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입은 물론 향유·전송에서 중시되었던 요소를 천착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고전소설 전체를 대상으로 논의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부득이 <사씨남정기><sup>9)</sup>를 중심으로 극적 상황의 기능과 의미를 간략히 살피는 것에 만족하고자 한다. 실제로 <사씨남정기>는 이 극적 상황으로 인하여 작품의 갈등과 사건진행의 복합적인 양상을 잘 보이는 바이다. 나아가 이 작품을 읽는 재미와 흥미도 이 극적 상황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작품의 문예미나 작품성의 고양에도 이 극적 상황은 소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작품이 처첩간의 갈등을 다룬 가정소설로 보아 윤리적 관장에서 수용·향유되었다고 보거나,<sup>10)</sup> 대중포교를 염두에 두고 勸佛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용·향유되었다고 보거나<sup>11)</sup> 간에 이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는 세세한 재미는 그 표현상의 특성 즉 극적 상황에서 연유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작품을 읽어 가면서 느낄 수 있는 재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현 양식으로서의 극적 상황을 <사씨남정기>에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이 극적 상황의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작품내용에서 이 극적 상황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 극적 상황이 수용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작품의 문예미나 작품성은 물론, 활발한 유통의 인자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 일조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9) 본고의 텍스트는 영풍서관본 <사씨남정기>(인천대학교, 민족문화자료총서, 구 활자본 고소설전집 제2차, 형설출판사, 1984)임을 밝혀둔다.

10) 김강미, <사씨남정기>의 작품인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우쾌제, <사씨남정기>의 구조적 특징 고찰, 인천대학교 논문집 제5집, 1984.

이금희, <사씨남정기> 연구-인물의 성격 및 내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원우논총 제4집, 1986.

11) 강중탁, <사씨남정기>의 불교사상, 명지어문학 제11집, 1979.

사재동, <사씨남정기>의 몇 가지 문제, 고소설연구논총, 다국어수용선생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88.

## 2. 表現樣式으로서의 劇的 狀況의 實際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고전소설의 표현은 여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극적 상황이 무엇보다도 중시된다 하겠다. 그것은 이 극적 상황이 관심과 흥미를 촉발하는 표현 양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단순히 서사내용을 전달·제시하는 기능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사건을 이루도록 하여 그 관심의 정도는 더한 것이다. 여기서는 <사씨남정기>를 들어서 그러한 표현양상의 특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실제로 <사씨남정기>는 이 극적 상황으로 인하여 복합적인 의미망을 창출해 내고 있다. 말하자면 이 극적 상황으로 서사전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여 서사적 역량을 배가하고 있다. 이제 그 실상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1) 結緣과 劇的 狀況

먼저 사씨와 유연수의 成親場面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장면에서는 善事를 위해서 극적 상황을 벌이는 것인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유연수의 아버지인 유현과 숙모인 杜夫人이 유연수의 혼사문제를 논한다.
- ② 이 때 주매파가 사소저가 재덕을 갖추었다고 말하자, 유현과 杜夫人이 그녀를 시험하기로 한다.
- ③ 이에 우화암의 묘책로 하여금 관화화상을 가지고 사소저에게 관음찬을 받아 오게 하니, 묘책은 사소저의 집에 이르러 거짓으로 시주 받은 물건이라며 관음화상에 사소저가 찬을 써 주기를 원한다.
- ④ 그러나 사소저가 아녀자가 시부를 짓는 것은 옛사람의 경계하는 바이고 또한 배운 것이 오직 유가의 글임을 들어 거절하자, 묘책은 관음이 원래 여자의 몸이기에 여자의 문필을 받아야 옳으며 또한 유가나 불가나 간에 그 궁극은 한 뿌리라고 하며 계속 간청한다.
- ⑤ 이에 사소저가 이기지 못하여 손을 정갈히 하고 관음찬 수백자를 족자 위에 가늘게 쓰니, 묘책 무수히 사례하며 유현의 집으로 돌아온다.
- ⑥ 유현과 두부인이 사소저의 문장을 보고 재덕이 출중함을 알아 성혼을 서두른다.

이상은 유현과 杜夫人이 사소저의 재덕을 알아보기 위하여 벌인 극적 상황이다. 이 극적 상황의 특성은 다른 등장 인물을 속이는 데에 있다. 그것도 모해나 음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사를 염두에 둔 속이기로, 결국은 이 극적 상황으로 인하여 사건이 결연으로 진전됨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2) 謀陷·陰害와 劇的 狀況

<사씨남정기>의 극적 상황은 이 음해와 모함을 염두에 두고 벌인 것에서 그 진면목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의 극적 상황은 특정 인물을 속이되, 그 속임은 음해와 저주를 위한 것이기에 그 갈등 양상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첩의 간악한 음해가 서사전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양상은 대부분 이 극적 상황으로 표출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먼저 장주의 발병과 관계된 극적 상황이다.

- ① 교씨·십랑·설매가 사씨를 출척시키려고 속의할 때 십랑이 계교를 꾸미니 모두 좋아한다.
- ② 십랑과 동청이 사씨의 필체를 모방한 요매한 물건을 사방에 묻고 남매를 불러 후속 조치를 취한다.
- ③ 한림이 입번하였다가 여러 날만에 돌아오니 장주의 병이 대단하다고 알린다.
- ④ 한림이 교씨에게 가니 교씨는 가정 내에 누군가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뢰다.
- ⑤ 이에 한림은 약을 구하여 남매에게 급히 다려 먹이라고 하지만 별 차도가 없다.
- ⑥ 한림은 장주의 병 때문에 걱정하고, 교씨 또한 칭병으로 음식을 거절하니 그의 걱정이 더해만 간다.
- ⑦ 하루는 남매가 부엌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물건을 발견한 것처럼 하고, 이것을 본 한림과 교씨는 아연실색한다.
- ⑧ 교씨는 울며 집안에 자신을 음해하는 자가 있다며 한림의 처분을 묻는다.
- ⑨ 한림은 그 필체가 사씨의 것임을 알고는 마음이 동했지만 남매를 시켜 그 물건을 태워 없애라고 명령한다
- ⑩ 한림은 사씨가 간악하다 여기고 그녀 대하기를 전일과 달리 한다.

이상의 내용은 교씨가 사씨를 모해하기 위하여 벌인 첫 번째 극적 상황이

다. 여기서는 교씨·동청·십랑·남매 등이 가담하여 사씨를 모해하려고 했다. 즉 저주하는 부적을 집안에 숨기고 그것을 사씨가 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한림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의 극적 상황은 지금의 극적 상황과 연계되는 것으로 사씨를 모해하기 위한 수법이 더욱 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교씨와 그녀의 간부인 동청은 사씨의 출척을 위하여 고심하던 중 동청의 계교로 사기극을 벌인다.
- ② 교씨와 동청은 유한림이 천자의 발탁된 바 되어 산동으로 민정을 살피러 가고, 사부인이 모부인의 병환으로 친정에 머문 사이 한 계책을 도모한다.
- ③ 교씨는 남매의 동생인 설매를 달래어 사부인의 폐물상자에서 가전보물인 옥지환을 훔쳐 오게 한다.
- ④ 사부인 모친이 별세함에 교씨 남매를 보내어 조문하고, 사씨는 治喪하고 동생인 사공자에게 가사를 잘 살피라고 당부한다.
- ⑤ 이 때 한림이 산동의 한 주막에서 주식을 사 먹으려 할 때 신성현으로부터 오는 한 소년이 들어와 읍소하기에 통성명을 하고 면식시간이 된다.
- ⑥ 둘은 벗하여 술을 마신 후 침소에 들었는데, 소년 냉진의 속옷에 옥지환이 있어 한림이 이상하게 여기고 의심한다.
- ⑦ 한림이 그 옥지환에 동심결이 맺어진 것을 보고 그 자초지종을 물으니 냉진은 신성현에서 한 부인과 정을 나누고 그 정표로 받은 것임을 말한다.
- ⑧ 이에 한림은 사씨를 의심하고 집으로 돌아와 사씨에게 옥지환 보기를 청한다.
- ⑨ 사씨가 폐물상자에서 옥지환을 찾으니 그것만 없고 다른 물건은 그대로 있어 사씨 창황하여 한림에게 그 행방을 묻는다.
- ⑩ 한림이 남을 주고 나에게 그것을 물으면 어찌겠냐며 그 의심이 완연하다.
- ⑪ 이 때 杜夫人이 오기에 한림이 전후 사정을 모두 이르니, 사씨는 혼비백산하여 원통함이 없게 해달라 하고 두부인은 유언이 사씨의 현덕을 유언으로 남겼기에 함부로 별하지 말라고 경계한다.
- ⑫ 사씨와 두부인은 설원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로 끝났고, 유언수는 사씨의 치죄문제를 교씨와 논의하나 명백한 증거가 없어 사씨를 벌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상은 옥지환을 활용하여 벌인 극적인 상황이다. 그것도 지난번의 계교가 유한림의 마음만 동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회를 보아 사씨를 출척하고자

그 강도를 높여 모해극·사기극을 연출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여기서도 사씨가 음행한 것처럼 꾸미기는 했어도 그녀를 출척시키지는 못했다. 그것도 두 부인이 적극적으로 만류하여 성사를 보지 못함에 다시금 그 강도를 더하여 사씨 출척을 꿈꾼다. 두부인이 아들을 따라 장사로 떠나니 교씨는 동청과 더불어 또다른 계책을 도모한다.

- ① 동청과 교씨는 당나라 사기에 나오는 무소의가 축천무후가 될 때 썼던 방법을 원용하여 사씨를 모해하려 한다.
- ② 하지만 동청은 교씨가 그 계교를 따르지 않음을 알고 남매를 시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한다.
- ③ 설매는 유모가 잠시 장주 옆을 떠난 사이 몰래 장주를 살해한다.
- ④ 유모가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는 장주를 보고 확인하니 이미 죽어 있었다.
- ⑤ 이를 안 교씨는 그 계교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크게 놀라 통곡하며 지난 번 저주하던 자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며 한림에게 죄인 찾기를 간청한다.
- ⑥ 이에 한림은 가중 비복을 잡아들여 문초를 시작한다.
- ⑦ 먼저 유모에게 문초하니 유모는 아이가 곤히 자고 있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알 수 없다고 한다.
- ⑧ 이 때 남매는 춘방과 설매가 난간 밖에서 수작을 한 후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이들을 잡아들여 문초한다.
- ⑨ 춘방은 종시 거짓을 하지 않고, 설매는 사부인이 인아와 장주가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자신과 춘방에게 장주를 죽이라 사주했는데 장주를 죽인 것은 춘방이라 한다.
- ⑩ 춘방은 마침내 문초로 죽었지만, 설매는 교씨가 나서서 하수인에 불과하다 하여 죽음을 면한다.
- ⑪ 교씨는 그 간사한 뜻을 더하여 자신이 장주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같이 죽음만 못하다 하고 즉시 방으로 들어가 띠를 끌러 목을 메니 시비들이 만류한다.
- ⑫ 교씨 통곡하며 한림을 격동시키나 말이 없자 갓은 소리로 사씨를 모함하고 나아가 사씨가 간부 있음을 말하며 한림의 위태로움까지 간한다.
- ⑬ 이에 한림은 사씨를 몸쓸 계집이라며 장차 출척시키려 하고, 교씨에게는 부인을 삼겠다고 언약한다.
- ⑭ 한림은 일가 친척을 모두 모아 놓고 사씨로 하여금 가묘에 하직 사배하게 한 후 출척시키고 교씨로 정실을 삼는다.
- ⑮ 일가 친척은 모두 교씨의 간악한 계교와 한림의 망령됨을 알지만 한림의 뜻에 따를 뿐이다.

이상은 동청과 교씨가 무소의의 비화를 원용하여 사씨를 모해하고자 벌인



극적 상황이다. 그것도 자신의 자식을 죽여 가면서 벌인 사건이기에 그 죄악은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 극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사씨는 유씨 가문에서 쫓겨나고, 잔악한 교씨와 그녀의 간부인 동청은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교씨와 동청은 사씨가 유씨 산소 아래서 기거함을 알고 자신들의 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워하여 사씨를 멀리 출척시키려고 계교를 쓴다.

- ① 교씨는 동청에게 말하길 사람을 보내어 사씨를 죽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자, 동청이 불의에 사씨가 죽으면 한림이 의심한다며 편지로써 계교를 도모한다.
- ② 동청은 두부인의 필체를 구하고 냉진을 불러 사씨를 속여 데리고 가서 첩으로 삼으라고 한다.
- ③ 냉진은 기꺼이 응하고 두부인의 필체로 편지를 써서 사씨에게 교군을 보낸 후 자신은 집으로 돌아와 화촉지구를 장만하고 기다린다.
- ④ 이에 냉진의 심복들이 사씨를 찾아가서 두추관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라며 편지를 전한다.
- ⑤ 편지는 사씨가 출척 당함을 알고 그녀를 부르는 내용이다.
- ⑥ 사씨 반기고 잠시 잠에 드니 유현의 부부가 현몽하여 그간의 사정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한다.
- ⑦ 사씨 꿈을 깨고 이상히 여겨 편지를 보고 위조한 것임을 알아 급히 남정의 길에 오른다.

이것은 교씨와 동청이 사씨가 장차 설원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여기고 그녀를 완전히 추방하기 위하여 벌인 사건이다. 어쨌든 이 극적 상황으로 인하여 사씨는 유씨 집안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고, 고통이 점철된 남행을 하게 되었다.

교씨는 한림의 총명을 해치기 위하여 집안에 부적을 숨겨 두고, 이로 인해 한림은 예전과 달리 총기가 떨어진다. 도진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그 원인을 알게 된 한림은 지난 모든 일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를 알게 된 교씨와 동청은 한림까지 모해하여 자신들의 환락을 이루려 계책을 도모한다.

- ① 한림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조정에 들지 않고 친구를 찾아갔다.
- ② 이 때 동청이 천자와 엄승상을 비방하는 한림의 글을 발견하고 교씨와 더불어大喜한다.
- ③ 이 둘은 갖은 교태를 일삼은 후 동청은 그 글을 가지고 엄승상집에

이른다.

- ④ 동청은 엄승상에게 한림이 술을 먹고 엄승상을 비방한다고 거짓으로 고하고, 또한 한림이 비방하는 글을 지었기에 흠쳐 왔다고 말한다.
- ⑤ 엄승상은 그 글을 가지고 입궐하여 천자에게 보이니 천자는 한림을 하옥하고 장차 사형에 처하려 한다.
- ⑥ 이 때 태우 서세가 사형만은 어렵다 하고 주위에서 간하는 말이 많기에, 엄승이 귀양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 ⑦ 이에 천자는 한림을 행주로 귀양보내도록 명한다.
- ⑧ 동청이 죽이지 않음을 승상에게 물으니 승상이 행주는水土가 사나운 곳으로 죽임과 같다고 말하니 동청이 크게 기뻐한다.

이 내용은 교씨와 동청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서슴치 않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자신들의 환락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고통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기에 그 잔악상은 더한 것이라 하겠다.

### 3) 治罪와 劇的 狀況

이 치죄와 관련한 극적 상황은 주로 善役이나 주인공이 반동인물의 악한 행위를 폭로하고 나아가 그 죄과에 따라 징벌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sup>12)</sup> 또한 假儒나 위선에 가득한 사람을 풍자적으로 그 허세를 드러내는 데도 이 극적 상황은 효과적으로 기능한다.<sup>13)</sup> 여기서는 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장면으로 교씨를 치죄하는 부분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① 사씨가 정실부인이 되어 가정을 수습하고 연수는 다시 시랑의 벼슬을 하게 되었다.
- ② 이 때 교씨는 냉진과 살다가 그가 죽자 낙양의 청루에서 교철랑이란 이름으로 기생생활을 하던 중 사부 차환에게 발각된다.
- ③ 사부가 유연수에게 돌아와 낙양에서의 사정을 모두 이르니, 유연수가 통분하여 그곳의 매파를 불러 지시대로 수행할 것을 명한다.
- ④ 이에 매파가 교씨를 찾아가서 예부상서로 올라가는 상공이 교씨의 향명을 듣고 칭한다며, 또한 그 부인이 출가치 못하여 후실로 들어가면

12) <춘향전>·<사씨남정기>와 같은 작품에서 그러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13) <배비장전>·<웅고집전>·<별주부전>·<홍부전>과 같은 작품에서 이러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정실부인이 될 것이라 말한다.

- ⑤ 교씨 종생의탁할 곳을 찾던 중이기에 크게 기뻐하며 쾌히 용낙하고 상공과 부인을 보기 위하여 가마를 타고 매파를 따른다.
- ⑥ 가마가 유연수의 집에 이르자 교씨는 이곳이 유한림의 집임을 알고 매파에게 물으니 매파가 유한림은 귀양가고 지금은 상공이 거주한다고 이른다.
- ⑦ 이에 교씨는 마음을 진정하고 이 집이 자신과 인연이 있다며 이번에도 백자당에 머물겠다고 한다.
- ⑧ 집에 이르러 시비가 교씨에게 상공과 부인을 뵈라고 말하기에, 고개를 들고 보니 유씨 종족만이 가득하여 교씨 어찌할 바를 모른다.
- ⑨ 유연수는 교씨를 크게 꾸짖으며 그 죄목을 들어 심장을 꺼낼 것을 말하니, 사씨가 시체만은 온전케 하자고 하여 동쪽 저지에서 타살한다.

이상은 극적 상황으로 하여 치죄와 권선징악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극적 상황은 지금까지 여러 계교를 부렸던 교씨를 징벌하기 위하여 벌인 것이기에 흥미를 더욱 고조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씨남정기>에서 원용한 극적 상황을 몇 가지로 분류·제시하였다. 이것만 보어도 이 작품의 재미는 바로 이 극적 상황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들이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악의 징벌에 따른 정화작용까지 이루어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극적 상황은 이 작품의 재미와 문예미의 창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劇的 狀況의 機能

앞장에서는 극적 상황이 어떠한 양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 확인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극적 상황이 서사적 기능과 역량의 확대에 어떻게 기능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제로 <사씨남정기>의 작품성은 이 극적 상황에 의하여 배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들에 의하여 복합적인 문예미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한 양상을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心理·狀況의 背景의 造成

이 극적 상황은 심리·상황적 배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소설은 서사·묘사·서술·대화와 때로는 설명이<sup>14)</sup> 동반된 표현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표현양식은 소설적 표현으로 적당하되 극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데는 다소간의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런데 극적 상황은 위의 표현양식을 기저로 하되 등장인물들이 연극의 인물처럼 행동하며 다양한 사건을 벌인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현은 소설을 평면적으로 이끌지 않고 입체적으로 유지하면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극적 상황은 그 무대배경을 다채롭게 유지시키는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다.

소설의 무대배경을 구상적 배경<sup>15)</sup>과 추상적 배경<sup>16)</sup>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구상적 배경이 소설을 읽으면서 일차적으로 간파할 수 있는 기본적 배경이라면, 추상적 배경은 물리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서사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사고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차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추상적 배경은 심리·상황적 배경이라 하겠는데, 극적 상황은 이와 같은 배경을 제대로 조성해 낸다는 점에서 그 기능과 의미가 있다 하겠다.

실제로 <사씨남정기>에서는 극적 상황이 심리·상황적 배경을 조성해 내고 있어 주목을 끈다. 먼저 결연을 위한 극적 상황은 장차 유연수와 사씨가 성혼하게 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될 뿐만 아니라, 사씨가 찬을 붙인 관음화

14) 설명에 의한 방식은 주로 작자가 개입하여 사건을 요약·제시하는 양식인데 주로 전지적 작가시점인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15) 구상적 무대배경은 서사세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특정한 장소와 공간으로 등장인물이 행동하는 시공간을 지목할 수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 현실계는 물론, 지하·천상·수중 등 등장인물이 활약하는 곳은 모두 구상적 무대배경으로 상정할 수 있겠다. 요컨대 소설을 읽으면서 쉽게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을 구상적 무대배경이라 할 수 있겠다.

16) 이 추상적 무대배경은 소설을 읽으면서 복선으로 암시된 요소가 독자들의 머리 속에 각인되고 그것이 다른 사건을 뒷받침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추상적 무대배경은 이차적인 것으로, 독자들이 소설을 읽는 사고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배경은 물리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서사전개와 밀접히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이 작품 전반을 통해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런데 관음화상은 작품을 통관하며 應身하여 잠재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것임을 족히 알 수 있게 한다. 결연을 위해 사용되었던 관음화상이 사건의 중요 부분마다 개입하며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복선적인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 사씨가 수월암에서 이 관음화상을 친견하는 특이함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사씨가 백의를 입은 관음과 같은 존재로 그려지는 데도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황적·심리적 배경으로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것은 교씨와 동청의 다양한 계교라 할 수 있다.

먼저 부적을 통한 극적 상황은 사씨를 모해하여 장차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교씨와 동청의 계교인데, 이 계교는 장주를 아프게 하고 마침내 그 원인을 사씨에게 전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연수는 자연히 사씨의 의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유연수 자신만 모르고 독자들은 익히 알고 있어 주목되는 바이다. 이를테면 독자들이 소설을 읽는 사고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심리·상황적 배경을 이루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극적 상황의 기능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극적 상황은 다음의 극적 상황을 불러오는 배경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바라 하겠다.

앞의 극적 상황에서 그 시발을 보인 모해사건은 다음의 극적 상황으로 이어져 그 긴장감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교씨의 간악한 계교는 이제 옥지환을 이용한 극적 상황으로 전개된다. 이 옥지환 사건은 사씨와 유연수가 집을 비운 사이 교씨와 동청이 벌인 것으로 사씨가 간부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그래서 이 극적 상황도 독자들이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체득되는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상황을 조성하여 주는 면모를 보인다. 또한 이 극적 상황은 교씨와 동청의 간악함을 드러내는 데도 충분 조건을 갖는다 하겠다. 이러한 극적인 분위기와 상황의 조성은 다음의 장주 살해 사건에서 그 정도를 더한다. 교씨와 동청은 무소의의 비화를 모방하여 장주를 죽이고 그 주범을 사씨인 것처럼 가장한다. 이 극적 상황은 모방극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바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상황으로 인하여 사씨는 유씨 집안에서 출척당하고 교씨와 동청은 그들이 노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작품의 주제 사상이 쟁쟁을 중심으로 사건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 극적 상황은 교씨의 악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자들로 하여금 교씨와 동청의 간악상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함은 물론, 이 상황으로 인하여 장차 그녀와 동청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를 가늠하게 하는 구실도 충실히 수행한다. 이를테면, 심리·상황적 배경을 적절히 조성해 낸다 하겠다. 이들의 모해극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출척된 사씨를 영원히 유씨집안에서 추방하기 위하여 편지 사건을 벌인다. 이 편지 사건은 출척당한 사씨를 두부인이 위로하며 초청한 것처럼 가장한 것인데, 이들의 간악함이 얼마나 주도면밀한 것인지를 독자들에게 알게 하는 구실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간악함을 드러내는 상황적 배경이라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유연수가 자신들을 의심하는 기미가 있자, 이제 유연수까지 출척시켜 자신들의 영달을 도모하려 한다. 이 극적 상황은 유연수가 쓴 글을 가지고 유연수를 모해·출척시키는 것인데,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영달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도 독자들은 교씨와 동청의 간악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나아가 인과응보격으로 그들의 치죄를 가늠하기에 족한 것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상황적인 배경을 이 극적 장면이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음해·모해와 관련한 극적 상황은 사건진행의 복선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악인형인물의 인간됨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작품의 분위기와 사건진행의 상황을 조성하여 입체적인 배경을 조성한다 하겠다.

이렇게 극적 상황을 벌이며 갖은 계교를 일삼았던 교씨를 징벌하는 데에도 이 극적 상황이 활용되어 그 심리적 배경을 조성한다. 이 극적 상황은 기생을 하고 있는 교씨를 속여 잡아 온 후 그 죄목을 들고 처형하는 장면인데, 지금까지 그녀가 저지른 갖가지 비행을 폭로·고발하는 극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그 동안의 악행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적 배경으로 작용하는 바라 하겠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씨남정기>에서는 이 극적 상황으로 인하여 복합적인 배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극적 상황으로 인하여 독자들의 심리적인 배경을 조성해 낸은 물론, 작품 속에서도 이 장면이 이른바 상황적 배경을 적절히 조성해 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건을 복선화하여 입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인자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 2) 登場人物의 性格 形象

<사씨남정기>는 교씨와 동청의 간악한 계교와 사씨의 인고가 주축을 이룬다 하겠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씨와 동청의 물인간성과 사씨의 성덕을 대칭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등장인물의 성격형상화는 이들의 인물됨을 주로 부각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형상화에 주축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극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극적 상황을 벌이면서 그들의 대칭적인 인물됨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먼저 결연의 극적 상황에서는 사씨의 인물됨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현이 그녀의 재덕을 확인하기 위하여 벌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극적 상황에서 사씨는 관음화상에 찬을 붙임으로써 족자 가운데의 백의관음과 같은 위치를 확보하는 면모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씨를 관음과 같이 자비·성덕의 인물로 그리려는 의도가 있다 하겠다. 더욱이 이 상황에서는 사씨의 재덕을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이것도 그녀의 인물됨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극적 상황을 벌인 궁극적 목적이 사씨의 인물됨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씨의 인물됨을 관음화상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부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다음으로 모해·음해와 관련한 극적 상황은, 부적을 통한 장주발병 장면·옥지환 장면·장주 타살 장면·위조편지 장면·유연수 모해 장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유연수를 기만하여 사씨를 모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극적 사건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사씨의 성격이 간악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씨의 간악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극적 사건은 악인형 인물의 물인간성을 폭로하는 구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악인형 특수인물인 교씨·동청·냉진 등의 비인간성으로 이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기에, 이들의 간악한 인간상을 적실하게 표출하는 것이 이 모해와 관련된 극적 상황인 것이다. 그것도 단일한 상황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빚어진다는 점에서 그들의 부정적 인간상은 더 할 수밖에 없었던

17) 이 작품에서 사씨의 인물됨을 입증하는 중요한 소재가 관음화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줄고(<사씨남정기>의 서사구조에 대하여-예술소재의 서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27집, 어문연구회, 1995)를 참조하기 바란다.

것이다. 이를테면 부적 사건으로 유발되었던 모해 사건이 유연수의 마음을 동하게 한 후 옥지환 사건을 벌여 사씨가 간부인 것처럼 가장·폭로하고, 이어 장주를 자신들이 죽이고 이를 마치 사씨가 죽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척의 꿈을 이룬다. 하지만 사씨가 유씨선현에 머무는 것을 알고는 편지 사건을 벌여 그녀를 영원히 유씨가문과 격리시키려 한다. 그 결과 사씨는 남정의 길에 오르게 되고, 사씨와 동청은 그 간교한 뜻이 더해만 갔다. 이제 자신들의 방해가 되는 유연수조차 출척시키기 위하여 엄승상에게 유연수를 모해하여 귀양보내게 된다. 이처럼 이 극적 상황은 이 작품을 유지·지탱하는 주축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교씨·동청·냉진 및 일부 시비들의 잔악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그들의 인물됨이나 인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결국은 그들의 성격을 결정 짓게 하는 인자라 할 수 있겠다. 반면에 교씨의 간악한 성격이 부각되면 될수록 사씨의 자비와 성인됨이 자연스럽게 부각되어 사씨의 성격도 알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치죄 사건은 이 작품의 결말을 알리는 것으로 교씨의 죄상을 밝히고 치죄하는 장면이다. 이 상황에서는 교씨의 그릇된 인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는데, 여기에서도 교씨는 살기만을 위하여 그녀의 비인간적인 면모가 부각된다. 반면에 교씨를 처형하되 지아비를 섬겼던 사람이기에 시체만을 온전히 보존하자는 사씨의 말은 그녀를 자비스런 인물로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씨남정기>는 인물의 형상화에서 극적 상황이 적절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읽는 재미는 바로 이러한 극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기에 그 기능이 주목되는 바라 하겠다.

### 3) 事件進行的 複線·立體化

고전소설의 사건진행은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사건을 복선화하고 입체적으로 유지하는 장치가 바로 이 극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씨남정기>에서도 이 극적 상황이 사건전개에 필수적인 요소로 내재·기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건의 기본 골격이 유지됨은 물론, 사건진행의 추진소가 되기 때



문이다. 실제로 이 작품은 사씨와 유연수가 결혼한 후 無子로 걱정하다가 교씨를 첩으로 들이고, 이 교씨가 갖은 악행을 자행하여 마침내 그 죄과로 죽임을 당하며, 사씨를 비롯한 유씨집안이 현창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 골격에 입체적인 미감을 부여하는 것이 극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사건전개와 극적 상황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작품은 유연수와 사씨가 결연을 하면서부터 사건이 진전함을 엿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관음화상을 통해 극적 상황을 벌인다. 이 상황으로 인하여 사씨의 현덕함이 드러나도록 의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의 결친을 필연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씨의 현덕함을 묘사나 설명으로 그려내지 않고 극적 상황으로 그려내어 그 인물됨을 더욱 여실히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표현양식으로서의 극적 상황의 가치가 더욱 주목된다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결친도 무자로 인하여 결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교씨를 첩으로 들이는데, 이 교씨의 등장은 이 작품의 활력소와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교씨가 등장하여 벌이는 갖가지 계교가 이 작품의 재미를 더해 주고 사씨의 현덕함을 역설적으로 강화하여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것도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극적 상황으로 사씨를 모해하여 흥미와 긴장감 유발을 더욱 촉진시키기에 관심을 끈다. 실질적으로 이 작품은 교씨의 간악한 계교와 그로 인한 사씨의 자비행을 대칭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씨가 벌이는 다양한 사기·기만극은 이 작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권선징악의 표출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재미와 흥미에 다름 아니라 하겠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교씨의 간악한 계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그것도 사씨를 모해하여 자신의 영달을 도모하는 과정이 극적 상황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제 그러한 극적 상황이 사건 전개에 입체적으로 미치는 상황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교씨는 부적을 통한 장주의 발병 사건을 벌인다. 이 장면은 사씨를 출척시키기 위한 준비단계로, 사씨의 필적을 이용하여 장주를 저주하는 글을 지어 여러 곳에 묻어 두었다가 이것을 찾아내어 사씨의 행위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그리하여 유연수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 자신의 뜻을 어느 정도

달성한다. 하지만 이 장면으로 야기된 모해사건은 다음 장면으로 구체성을 띤다. 유연수와 사씨가 집에 없는 사이를 틈타 교씨와 동청은 사씨의 옥지환을 훔쳐내어 냉진으로 하여금 외유 중인 유연수에게 보이도록 한다. 이 장면으로 인하여 유연수는 사씨가 간부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 태도가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하지만 두부인이 사씨의 현덕을 누차 알리기에 어떠한 처벌도 하지 못하고 내심 못마땅할 따름이다. 그러던 중 두부인이 외유 중임을 틈타 무소의의 비화를 모방한 가장극을 벌인다. 이 장면은 교씨와 동청이 장주를 죽이고 이를 사씨가 교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씨출척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 그래서 사씨는 유씨집안에서 출척 당하고 교씨와 동청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여 그 간악한 행위가 점층된다. 하지만 사씨가 유씨선현에 머물고 있음을 알고는 냉진에게 사씨를 첩으로 삼도록 하는 가장극을 벌인다. 이 장면은 두부인의 필체를 모방하여 사씨를 유인, 강제 결혼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지만 사씨는 시부모의 현몽으로 이 위기를 무사히 모면하고 남정의 길에 오른다. 자신들의 뜻을 성취시킨 교씨와 동청은 득의양양하지만 집진적으로 유연수가 의심하는 뜻을 갖자, 유연수까지도 모해·출척코자 음해극을 벌인다. 이들은 유연수가 치사하고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엄송상을 비방하는 글을 가지고 유연수를 모해하여 귀양보낸다. 이제 둘은 더 없는 운우지락을 나누며 벼슬을 사서 착취에 여념이 없다. 반면에 유연수와 사씨는 고행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이처럼 극적 상황은 이 작품의 사건전개상 상승·위기·절정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이 극적 상황이 사건 전개를 입체적으로 이끌어 복합적인 의미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이 극적 상황이 다음 사건을 벌이는 복선으로 작용하여 유기적인 사건을 이루도록 한다. 특히 이 작품이 교씨의 간악상을 드러내고 사씨의 현덕을 보이는 것이라 할 때 그 간악상은 대부분 이 극적 상황에 의해 표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도 평면적인 서술보다는 입체적인 극적 상황으로 장면을 조성하여 사씨를 모해한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의 표현상의 독특한 양상은 바로 이 극적 상황에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모해극을 벌였던 교씨를 치죄하는 데에서도 극적 상황을 활용하여 주목되는 바이다.

이 치죄와 관련한 극적 상황은 이 작품의 하강·결말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로, 교씨의 간악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사씨의 자비심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여전히 간악한 교씨를 속여 집으로 유인한 후 극적으로 치죄하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권선징악인 주제사상이 표출되고 독자에게는 분개했던 마음을 정화하도록 한다.

이처럼 극적 상황은 이 작품의 사건 전개에 필수적인 요소임은 물론, 이 극적 상황으로 인하여 사건전개가 입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나아가 다음 사건을 예견·유도하는 복선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것은 소설을 단순히 평면·단선화한 것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표현양상을 보인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 4) 惡의 表出과 懲罰

<사씨남정기>는 교씨의 간악한 행위를 표출하고 나아가 그녀를 치죄하는 것이 사건 전개의 골격이라 할 수 있다. 사씨의 성덕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교씨의 간악상을 폭로하고 그를 징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악의 표출은 주로 교씨가 사씨와 유언수를 모해하는 극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제를 권선징악이라고 할 때 그 악의 표출이 극적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악의 징벌 또한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극적 상황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데 적절히 작용하는 바라 하겠다.

먼저 부적을 통한 장주의 발병 장면은 교씨와 동청의 간교함을 드러낸 것으로 그들의 사악함을 보이는 시발단계라 할 수 있겠다. 이어서 옥지환으로 사씨를 간부인 것처럼 가장하는데, 이는 장주 발병장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극적 상황으로 사건을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면모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그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장주를 죽이고 그 교사자를 사씨로 지목한다. 이는 가장 악랄한 행각으로 사씨를 모해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씨는 출척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출척을 위하여 계속해서 극적 상황인 음해극을 벌였던 것이다. 이렇게 출척 당한 사씨가 유씨선현으로 가자 교씨와 동청은 다시 음해극을 벌여 사씨를 영원히 유씨문중에서 멀어지게 한다. 또한 유언수가 자신들을 의심하자 그를 엄승상에게 밀고하여 귀양을 보내는데, 이는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잔악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연속되는 극적 상황에서 보다 분명한 양상을 보이는 바라 하겠다. 말하자면 이 작품이 교씨의 사악함을 여실히 드러낸 후 그 죄를 징벌하고, 나아가 사씨의 성덕을 보이려 한 것임을 상기할 때, 극적 상황이 간교함을 잘 보여 준다는 것은 주제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교씨의 간교함과 비인간적인 모습이 이 극적 상황으로 인하여 제대로 부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평면적인 서술과는 다른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악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지른 악한 행위는 다음의 극적 상황으로 인하여 그 진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유연수는 교씨가 기생이 되었음을 알고는 그를 치죄하기 위하여 몰래 매파를 놓아 잡아들인다. 그런 다음 그녀를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죄상을 폭로하고 타살한다. 이는 극적 상황으로 이 작품의 주제사상인 권선징악을 잘 보여 주는 바라 하겠다.

이처럼 극적 상황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입체적인 상황을 조성하여 악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행위도 극적 상황으로 치죄하였기 때문이다.

#### 4. 小說의 受容과 劇的 狀況의 意味

고전소설의 표현 양식은 장황한 서술·묘사에 대화체가 상당히 발달한 면모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 양식이 기저를 이루되, 구성이나 서사 전개에 획기적인 일조를 하는 것이 이른바 극적 상황이다. 이 극적 상황은 마치 연극과 같은 장면으로 작품 속에 용해되어 전후의 사건을 유기적으로 조직케 한다. 그래서 이 극적 상황은 作中劇과 같은 양상을 띠며 서사전개에서 긴요한 작용을 수행하는 바라 하겠다. 특히 극적 상황은 다른 등장인물을 속이고 특정인물이 뜻하는 바를 성취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그것도 독자에게는 그 상황을 모두 알리고 속임 당하는 사람만 알 수 없도록 하여 그 긴장감과 연극적 분위기는 더한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 극적 상황은 서사역량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술이나 묘사가 아무리

상황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중적인 구연보다는 독서에 더욱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반면, 극적 상황은 독서에도 적당할 뿐만 아니라 구연에서 더욱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청자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음은 물론, 연극의 등장인물들이 행동하는 모습과 같이 머리 속에 그리며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현실생활의 행동과 전주어 사고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수용이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春香傳>에서는 어사출두와 사또 정치장면이 독자들에게 통쾌감을 주고, <배비장전>에서는 안일한 생활과 주색잡기에만 급급한 비장을 속여 풍자하는 데서 작품을 읽는 재미를 찾을 수 있다. <이춘풍전>에서도 춘풍처 김 씨가 남장을 하여 춘풍을 혼계하고 평양기생울 호령하는 데에서 그 재미는 배가되어 청중들은 그 골재미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또한 <홍부전>에서는 홍보발복의 동인이었던 제비다리를 놀부가 해학스럽게 부러뜨리고 발복을 기다리는 데에서 청중들은 재미와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별주부전>은 우화소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토끼가 거북을 속이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활과 우둔함을 이 극적 장면이 잘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고전소설이 표현양식으로 극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동인을 짐작할 수 있겠다.<sup>18)</sup> 극적 표현으로 긴장과 해학·풍자가 어우러진 한판을 조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풍자나 조롱을 표출하는 데는 이 극적 상황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자들에게 신명나고 통쾌한 복수와 같은 정서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양상은 <사씨남정기>를 비롯하여 <춘향전>·<배비장전>·<이춘풍전>·<별주부전> 등에서 쉽게 찾아진다. 이들은 이 극적 상황으로 작품성의 고양은 물론,

18) 이 점은 고전소설을 청중들 앞에서 연행할 때 한 판 어우러지는 마당을 조성하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말하자면 극적 장면을 연행할 때 청중들이 특정한 반응을 보이는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줄고, 고소설의 낭송과 유통에 대하여, 고소설연구 제1집 1995) 또한 고전소설의 현대적 연행유통에서도 이 극적 장면은 재미를 유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이춘풍전>·<별주부전> 등의 작품을 연행할 때 그 속임수에 의한 극적 장면이 청중들에게 한판 어우러지는 재미를 조성한다.

당시의 민중의식까지도 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 수 있다.<sup>19)</sup> 어쨌든 이러한 극적 상황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소설들은 대중적인 파급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동일한 구성으로 권선징악을 표출하는 상당수의 고전소설이 그 나름의 재미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표현양식이 장면단위의 극적 상황을 조성했기에 가능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씨남정기>도 독자들이 느끼는 재미와 감동은 장면단위로 제시된 극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실제로 이 작품은 선악의 대칭구조를 보이며, 권선징악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이다. 다수의 작품이 동일한 내용을 형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작품 나름의 가치와 문학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작품만이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사씨남정기>에서는 이러한 재미가 다름 아닌 표현양식에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씨가 벌이는 다양한 극적 장면은 교씨의 잔악성을 효과적으로 표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분노와 복수심을 불태우도록 한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 장면의 극적 상황이 이 작품을 읽는 잔재미라 할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이 작품이 대중적 파급을 제대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극적 상황의 조성에서 가능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자들이 작품 전체의 구성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는 복합적인 사고과정을 겪지 않아도 쉽게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이 극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이러한 재미는 마지막 극적 상황인 교씨의 治罪에서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금까지 갖은 계교로 악행을 자행한 교씨에 대한 복수심을 풀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권선징악을 여실히 보이는 것으로, 독자들은 지금까지 느꼈던 분노를 치죄의 극적 상황으로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극적 상황의 잔재미가 있었기에 이 작품은 대중적인 수용이 용이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도 권선징악을 여러 형태로 보여 주는 극적 상황이기에 수용에 더

19) 이 극적 상황이 위선이 가득한 假儒를 조롱·풍자하기 위하여 종종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풍자는 특정계층에 대한 비판이 내재되는 것이 보통이기에 이 극적 상황은 당시의 민중들의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전소설을 문예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 되겠다.

육 용이했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sup>20)</sup> 이것은 이 작품의 문학성·작품성을 극적 상황이 어느 정도 실현해 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 5. 結 論

이상으로 필자는 <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표현양식으로서의 극적 상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극적 상황의 실체를 유형별로 확인하고, 그 기능을 몇 가지 관점에서 찾아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극적 상황이 소설의 수용에는 어떠한 의미를 구축하고 있는 지 고찰해 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극적 상황은 서사·서술·대화·묘사 등을 토대로 하되, 연극적 장면처럼 특정상황을 설정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시키는 표현양식이다. <사씨남정기>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나기에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에서는 유연수와 사씨의 결연이 극적 상황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음해·모해와 관련된 극적 상황으로는 부적을 통한 장주발병 장면·옥지환을 통한 사씨모해 장면·장주 타살 장면·위조편지 장면·유연수 모해 장면으로 대별된다. 또한 治罪와 관련한 장면도 제시되어, 이 작품에서 극적 상황은 작품성의 고양과 문예미의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극적 상황은 서사역량을 확장·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씨남정기>에서 극적 상황의 기능은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이 극적 상황은 물리적·구상적 배경을 벗어나 추상적인 심리적·상황적 배경을 조성한다. 말하자면 극적 상황이 소설을 읽는 사고과정에서 복선적으로 기능하여 독자들에게 심리·상황적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작품 전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작품의 독특성이라 하겠다.

---

20) 이 작품이 교씨의 간악함을 치죄하고 사씨의 현덕함을 보이는 이른바 권선징악 때문에 대중적인 파급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所謂南征記感義錄數篇 令人說去 便有感發底矣, 晚窩翁, <一樂亭記序>) 이러한 면모를 극적 상황이 잘 조성해 내고 있다.

이 극적 상황은 등장인물의 성격도 부각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작품이 교씨의 잔악성을 사씨의 현덕함과 대칭적으로 부각시키고, 나아가 교씨의 죄상을 밝혀 치죄하는 것이라 할 때, 교씨의 비인간적인 면모는 그가 벌인 극적 상황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사씨의 현덕함을 부각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교씨의 잔악성과 사씨의 현덕함이 극적 상황으로 인하여 잘 드러난다 하겠다. 또한 이 극적 상황은 사건 진행을 단선적·평면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복선·입체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사건을 진행하되 단조로움을 탈피하여 극적 단위의 여러 장면으로 입체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극적 상황은 다음 사건을 야기·촉진하는 구실도 하여 복선의 기능까지도 충실히 수행한다. 또한 악의 표출과 징벌을 통해 권선징악을 제대로 보여 주는 것도 이 극적 상황이다. 이 작품이 재충을 중심으로 한 권선징악의 표출이라고 할 때, 그 잔악상을 제대로 보여 주는 것이 이 극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씨의 잔악함은 그녀가 벌이는 극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에 이 극적 상황이야말로 악을 표출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그러한 악을 징벌하는 데에도 이 극적 상황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씨의 죄목을 들어 치죄하는 장면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권선징악을 극적 상황으로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이 극적 상황은 이 작품의 문예미나 서사적 역량을 확장·확보하는데 절대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다.

3) 작품성을 고양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이 극적 상황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설의 수용에도 이 극적 상황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상당수의 고전소설은 동일한 구조와 주제를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각개 작품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며 독자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제공한다. 이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는 것이 그 작품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겠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 특징이 표현양식의 독특성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장면 단위의 흥미소인 극적 상황에 의하여 독자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소설을 읽는 재미를 이 극적 상황이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이 점 때문에 이 작품은 수용미학적 관점에서도 극적 상황이 중시되는 터라 하겠다.



지금까지는 고전소설의 표현양식의 한 특성으로 극적 상황을 개괄했을 뿐이다. 그것도 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설득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당수의 고전소설에서 이 표현양식은 상당히 비중 있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어,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고전소설의 흥미소나 문예미의 인자를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독자들이 소설을 읽으며 체득할 수 있는 잔재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소설의 대중적 유통의 동인도 더불어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